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여러 고통과 문제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연약하고 절망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 인내, 기도, 주님을 바라봄과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믿으라고 권면하시며,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고, 이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으며, 가장 큰 상실감, 절망감을 주는 것이 죽음입니다.(히브리서 9장 27절) 예수님은 우리 인생 최대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의 해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부활 가운데 하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원천이며 본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활은 우리의 영과 혼과 궁극적으로 육신까지를 포함한 완전한 새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에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끊고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1/4(월)	11/5(화)	11/6(수)	11/7(목)	11/8(금)	11/9(토)	11/10(주일)
눅 15-17	눅 18-20	눅 21-22	눅 23-24	요 1-3	요 4-5	요 6

QT

이번 주 QT 말씀

11/4(월)	11/5(화)	11/6(수)	11/7(목)	11/8(금)	11/9(토)	11/10(주일)
시 65:1-13	시 66:1-7	시 66:8-20	시 67:1-7	시 68:1-18	시 68:19-35	시 69:1-1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은 나누어 주세요.

3.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